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48호 【루게 제 24926호】 주제 104 (2015)년 5월 28일 (목요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월남공산당대표단이 선물을 드리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월남공산당대표단원들이 선물을 드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월남공산당

중앙리론리사회 부위원장인 레 후 응이아단장이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동지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창건 70돐, 조선해방 70돐경축 나이제리아전국준비위원회 결성

조선로동당창건 70돐, 조선해방 70돐경축 나이제리아전국준비위원회가 21일 아부자에서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나이제리아인민민주당 신용위원회 위원인 나이제리아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이브라힘 만투가, 부위원장으로

전국회 하원 의장 아군과 아내나 크레가, 서기장으로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 알함만 맘만 무함마드가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조선로동당창건 70돐, 조선해방 70돐을 맞으며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볼렬의 업적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자주권수호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이룩하고있는 성과를 출판보도물을 통하여 적극 소개선전하며 경축모임, 영화감상 등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다그치고있는 조선

국제사회계가 경탄

백두령장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 따라 조선속도창조의 불길높이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 걸맞은 높이로 달려가는 우리 조국의 약동하는 모습에 국제사회계가 경탄하고있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날에나마다 올라보게 면모를 일신시켜 나가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다그쳐 21세기의 새로운 문명개화를 활짝 열어놓아야 한다는것이 김정은령도자의 마시명스키장과 문서물놀이장,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과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연풍과 학자휴양소,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와 평양음악원, 애육원을 비롯하여

모든 건축물들은 김정은령도자께서 지니고계시는 문명의 높이, 창조성의 높이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조선속도를 창조할데 대한 김정은령도자의 애국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지금 이 시각에도 조선에서는 끝없는 비약과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도이퀵란드반제연단 인터넷홈페이지는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일심단결과 불패의 굳기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은 곧 사회주의강성국가라고 하신바 있다. 조선의 경제형편이 아직 어려운 것만 인민들의 모든 꿈과 이상이 꽃피는 강성국가, 사회주의문명국을 하루빨리 건설하시려는 그의 결심은 확고부동하다고 지적하였다. 인도네시아선봉자당 중앙지도체재총회위원장 은 나라에 김정일애국주의가 차넘치고 경제강국,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서 눈부신 기적들이 연이어 일어나고있는 조선의 영이적인 현실은 김정은각하의 혁명적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김정은시대는 김일성주석께서와 김정일각하께서 뿌려놓으신 귀중한 씨앗들이 만발의 열매로 주렁주렁 번영의 시대이며 조선인민의 꿈과 이상이 눈앞의 현실로 펼쳐지는 희망의 시대라고 격찬하였다. 최학의 역경속에서 사회주의조선의 자주권과 존엄을 빛나게 파시하신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전체 군대와 인민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 문명국건설에서 대비약을 이룩하도록 이끄셨다. 그의 령도를 받들어 현란군민은 세계문명을 앞서나가는 기발비적창조물들을 수없이 일떠세우며 창조와

변혁의 최정성기를 안아왔다. 에절트신문 《알 마라야》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경제강국건설뿐 아니라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이라는 새로운 목표로 내놓으셨다. 그이께서는 조선의 계속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려고 하신다. 현란군민을 하나와 같이 움직여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일으켜나가는 그의 령도는 온 나라에 대혁신, 대비약의 불바람을 안아오고있다. 령도와 발자취가 어리고 손길이 닿는 곳마다 천지개벽과도 같은 전변이 일어나고있는것이 바로 조선의 현실이다. 비범한 령도에 솟을 지니신 김정은령도자께서 계시어 조선은 가까운 앞날에 강성국가로 우뚝 솟아오르게 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건설의 대번영기를 열어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게 될 자랑찬 성과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고질세멘트의 국산화 실현

사회주의경제건설에 크게 이바지하고 10월의 대축전장으로 향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하는 또 하나의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었다.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100%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원료와 연료에 기초하여 여러가지 용도의 강도높은 고질세멘트를 생산하는 기술을 확립하였다. 고질세멘트의 국산화실현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판시를 위한 투쟁에서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동맹기업이 거둔 고귀한 승리의 산물, 자력경쟁의 열매이며 우리 나라 세멘트공업의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자랑스러운 창조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건설에서 오늘의 전성기를 대번영기로 더욱 고조시켜 선군조선의 새로운 건설력사를 창조하고 건설부문에서의 혁신의 불화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비약의 불길로 세차게 타번지게 하여 조국방어의 새시대를 펼쳐나가려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승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의 기술자, 노동자, 일꾼들은 우리 나라의 원료, 연료에 기초한 고질세멘트생산기술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진행하였다. 고질세멘트는 도로, 비행장활주로, 다리건설 등에 쓰이며 리용목적과 건설물의 특성으로부터 일반세멘트생산방법과 구별된다. 고질세멘트는 일반세멘트에 비해 구부림세기와 누름세기, 열기견딜성, 담습견딜성이 높고 수축률이 낮은것이 기본특징인것으로 하여 그 생산기술은 높은 과학기술적 문제해결을 요구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기어이 결사관철할 총성의 일념으로 산악같이 일떠선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의 기술자들은 세멘트생산의 첫 궁정인 원료준비단계에서부터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새롭게 해결하여 고질세멘트생산에 대한 돌파구를 보기 좋게 열어나갔다. 기술자들과 노동자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당이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바라는 높이에서 기어이 고질세멘트를 생산하기 위해 탐구의 낮과 밤을 이어나갔다. 결과 소성로에서 미분탄의 연소속도와 연소효율을 최대로 높이기 위한 방도를 찾아내었으며 크리크형성반응과 열교환이

충분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소성로의 합리적인 회전수를 확정하고 소결대의 길이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크랭크의 질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고속도소성방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물결기술적도대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빠른 기간에 시험생산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사업도 동시에 내밀었다. 련합기업소 책임일꾼들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을 힘있게 지펴올려 가소로에 들어가는 공기의 온도를 최대로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도를 찾아냄으로써 고질세멘트의 질과 양에 영향을 미치는 가소물을 9.8%이상 보장한것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기술적문제들을 높은 수준에서 해결하였다. 고시어린 투쟁의 나날에 이들은 국제규격과 기술적요구에 부합되는 여러가지 용도의 강도높은 고질세멘트를 현존설비를 리용하여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으며 마침내 고질세멘트생산기술을 확립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자랑찬 성과는 위대한 장군님을 명에배인으로써 모시고 일하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는 우리 당의 위대한 강성국가건설위업을 만드는 길에서 언제나 전초병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며 이들의 투쟁을 걸음걸음 이끌어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과 사랑에 보

담하려는 이목 로동계급의 비상한 총성의 열의가 안아온 결실이다. 고질세멘트생산기술의 확립은 당이 존귀한 리용된 물품을 가리지 않고 산악같이 펼쳐나 기어이 해체되고야마는 조선로동계급의 본래를 힘있게 파시하였다. 또한 모든것을 우리 식으로 창조하며 생산과 건설의 국산화, 주체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정책을 무조건 결사관철하려는 불타는 자각과 열의로 충만될 때 어떤 집단, 봉우리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얼마든지 점령할 수 있다는 철리를 로동계급의

심장속에 다시금 깊이 새겨주었으며 당의 전진과학기술선진화방침의 정당성과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위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하여주었다. 이 고질세멘트는 여러 중요대상건설에 적극 리용되고있다. 여러가지 용도의 강도높은 고질세멘트생산기술이 확립됨으로써 건설의 대번영기를 열어나가는데서 새로운 변혁을 일으킬수 있는 또 하나의 튼튼한 물결기술적도대가 마련되게 되었다. 상원의 로동계급은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공고히 하면서 더 큰 승리와 위훈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보무당당히 들어서기 위하여 충산투쟁의 불길을 계속 세차게 지워올리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경철 사진 본사기자 리진명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펼쳐가리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의 감사문을 받아안은 당일군들과 청년동맹일군들의 반향

청년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새로운 전환을

적후대, 익측부대로서의 영예를 빛내이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청년들을 고상한 정신과 미풍을 지닌 시대의 선구자들로 키워낸 당조직들과 청년동맹조직들에게 보내주신 감사문은 온 도를 격정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의 청년조직사상을 총칭하여 반드시 길에 오만자루 품을 아낌없이 바치면서 미덕의 화원을 정성다해 가꾸어가고있는 우리의 당일군들과 청년동맹일군들을 높이 평가 해주시며 조선로동당 제 1비서의 이름으로 뜨거운 감사와 동지적인사를 보내주셨다. 뜨거운 감사와 동지적인사! 이것은 우리 당조직들과 청년동맹조직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이고 뜨거운 사랑이다. 우리는 그 사랑, 그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감사문에서 밝혀주신대로 청년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각급 당조직들은 청년사업에 당사업 못지 않게 중시하고 청년동맹조직들을 적극 내세워주며 동맹조직이 자기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다하도록 힘껏 떠밀어주어야 합니다.」 청년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당책임일군들부터가 청년교양에 항상 머리를 쓰고 품을 들이며 청년동맹조직들의 자립성과 창발성을 높이는 데 주목을 들리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감사문에서 청년동맹일군들은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무거운 임무를 한시도 잊지 말고 사상단련과

젊은이들로 키우도록 하겠다. 5대교양을 틀어쥐고 사상교양사업을 청년맞이 나래 참신하게 공세적으로 벌이며 정의감이고 당의 의도에 맞게 동맹조직을 쇄소리나 전투대로 꾸리며 5대교양을 틀어쥐고 사상교양사업을 청년맞이 나래 참신하게 공세적으로 벌여나가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청년들을 고상한 정신과 미풍을 지닌 시대의 선구자들로 키워낸 당조직들과 청년동맹조직들에게 보내주신 감사문은 온 나라 청년동맹조직들과 청년들을 무한히 격동시키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감사문을 믿음으로 심장에 새긴 우리 청년들의 기상은 하늘에

닿았다. 사실 우리 청년들을 이처럼 훌륭한 청년들로, 미풍선구자들로 키우신분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런데 그 모든 성과를 우리에게 통째로 돌려주시며 감사문까지 보내주시셨으니 믿음이며 이보다 더 큰 믿음, 사랑이런 이보다 더 뜨거운 사랑이 또 어디 있겠는가. 청년강국의 기상이 전례없이 앙양되고있는 때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감사문을 받아안은것은 주체의 조선청년동맹운동에서 로동계급 특기할 사변이며 온 나라 청년들의 대경사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 주신 감사문의 구절구절을 그대로 우리 청년들을 선군혁명의

정신력을 총괄시켜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펼쳐나갔다. 우리는 청년동맹을 선군혁명의 척후대, 익측부대로 내세워 주시며 청년들을 위해서라면 이 세상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을 심장깊이 새겨안고 선군청년전위대대의 위력을 남김없이 펼쳐나감으로써 당장전 일꾼들을 청년동맹의 새로운 성과로 장식하며 다음에 맞게 되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창립 일흔돐을 백두산대국의 청년대축전으로 맺었기 때문이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전용남

청년들을 고상한 정신과 미풍을 지닌 시대의 선구자들로 키워낸 당조직들과 청년동맹조직들에게 보내주신 감사문은 온 도를 격정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의 청년조직사상을 총칭하여 반드시 길에 오만자루 품을 아낌없이 바치면서 미덕의 화원을 정성다해 가꾸어가고있는 우리의 당일군들과 청년동맹일군들을 높이 평가 해주시며 조선로동당 제 1비서의 이름으로 뜨거운 감사와 동지적인사를 보내주셨다. 뜨거운 감사와 동지적인사! 이것은 우리 당조직들과 청년동맹조직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이고 뜨거운 사랑이다. 우리는 그 사랑, 그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감사문에서 밝혀주신대로 청년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각급 당조직들은 청년사업에 당사업 못지 않게 중시하고 청년동맹조직들을 적극 내세워주며 동맹조직이 자기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다하도록 힘껏 떠밀어주어야 합니다.」 청년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당책임일군들부터가 청년교양에 항상 머리를 쓰고 품을 들이며 청년동맹조직들의 자립성과 창발성을 높이는 데 주목을 들리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감사문에서 청년동맹일군들은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무거운 임무를 한시도 잊지 말고 사상단련과

젊은이들로 키우도록 하겠다. 5대교양을 틀어쥐고 사상교양사업을 청년맞이 나래 참신하게 공세적으로 벌이며 정의감이고 당의 의도에 맞게 동맹조직을 쇄소리나 전투대로 꾸리며 5대교양을 틀어쥐고 사상교양사업을 청년맞이 나래 참신하게 공세적으로 벌여나가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청년들을 고상한 정신과 미풍을 지닌 시대의 선구자들로 키워낸 당조직들과 청년동맹조직들에게 보내주신 감사문은 온 나라 청년동맹조직들과 청년들을 무한히 격동시키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감사문을 믿음으로 심장에 새긴 우리 청년들의 기상은 하늘에

닿았다. 사실 우리 청년들을 이처럼 훌륭한 청년들로, 미풍선구자들로 키우신분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런데 그 모든 성과를 우리에게 통째로 돌려주시며 감사문까지 보내주시셨으니 믿음이며 이보다 더 큰 믿음, 사랑이런 이보다 더 뜨거운 사랑이 또 어디 있겠는가. 청년강국의 기상이 전례없이 앙양되고있는 때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감사문을 받아안은것은 주체의 조선청년동맹운동에서 로동계급 특기할 사변이며 온 나라 청년들의 대경사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 주신 감사문의 구절구절을 그대로 우리 청년들을 선군혁명의

정신력을 총괄시켜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펼쳐나갔다. 우리는 청년동맹을 선군혁명의 척후대, 익측부대로 내세워 주시며 청년들을 위해서라면 이 세상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을 심장깊이 새겨안고 선군청년전위대대의 위력을 남김없이 펼쳐나감으로써 당장전 일꾼들을 청년동맹의 새로운 성과로 장식하며 다음에 맞게 되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창립 일흔돐을 백두산대국의 청년대축전으로 맺었기 때문이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전용남

청년들을 고상한 정신과 미풍을 지닌 시대의 선구자들로 키워낸 당조직들과 청년동맹조직들에게 보내주신 감사문은 온 도를 격정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의 청년조직사상을 총칭하여 반드시 길에 오만자루 품을 아낌없이 바치면서 미덕의 화원을 정성다해 가꾸어가고있는 우리의 당일군들과 청년동맹일군들을 높이 평가 해주시며 조선로동당 제 1비서의 이름으로 뜨거운 감사와 동지적인사를 보내주셨다. 뜨거운 감사와 동지적인사! 이것은 우리 당조직들과 청년동맹조직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이고 뜨거운 사랑이다. 우리는 그 사랑, 그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감사문에서 밝혀주신대로 청년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각급 당조직들은 청년사업에 당사업 못지 않게 중시하고 청년동맹조직들을 적극 내세워주며 동맹조직이 자기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다하도록 힘껏 떠밀어주어야 합니다.」 청년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당책임일군들부터가 청년교양에 항상 머리를 쓰고 품을 들이며 청년동맹조직들의 자립성과 창발성을 높이는 데 주목을 들리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감사문에서 청년동맹일군들은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무거운 임무를 한시도 잊지 말고 사상단련과

젊은이들로 키우도록 하겠다. 5대교양을 틀어쥐고 사상교양사업을 청년맞이 나래 참신하게 공세적으로 벌이며 정의감이고 당의 의도에 맞게 동맹조직을 쇄소리나 전투대로 꾸리며 5대교양을 틀어쥐고 사상교양사업을 청년맞이 나래 참신하게 공세적으로 벌여나가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청년들을 고상한 정신과 미풍을 지닌 시대의 선구자들로 키워낸 당조직들과 청년동맹조직들에게 보내주신 감사문은 온 나라 청년동맹조직들과 청년들을 무한히 격동시키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감사문을 믿음으로 심장에 새긴 우리 청년들의 기상은 하늘에

닿았다. 사실 우리 청년들을 이처럼 훌륭한 청년들로, 미풍선구자들로 키우신분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런데 그 모든 성과를 우리에게 통째로 돌려주시며 감사문까지 보내주시셨으니 믿음이며 이보다 더 큰 믿음, 사랑이런 이보다 더 뜨거운 사랑이 또 어디 있겠는가. 청년강국의 기상이 전례없이 앙양되고있는 때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감사문을 받아안은것은 주체의 조선청년동맹운동에서 로동계급 특기할 사변이며 온 나라 청년들의 대경사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 주신 감사문의 구절구절을 그대로 우리 청년들을 선군혁명의

정신력을 총괄시켜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펼쳐나갔다. 우리는 청년동맹을 선군혁명의 척후대, 익측부대로 내세워 주시며 청년들을 위해서라면 이 세상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을 심장깊이 새겨안고 선군청년전위대대의 위력을 남김없이 펼쳐나감으로써 당장전 일꾼들을 청년동맹의 새로운 성과로 장식하며 다음에 맞게 되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창립 일흔돐을 백두산대국의 청년대축전으로 맺었기 때문이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전용남

청년들을 고상한 정신과 미풍을 지닌 시대의 선구자들로 키워낸 당조직들과 청년동맹조직들에게 보내주신 감사문은 온 도를 격정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의 청년조직사상을 총칭하여 반드시 길에 오만자루 품을 아낌없이 바치면서 미덕의 화원을 정성다해 가꾸어가고있는 우리의 당일군들과 청년동맹일군들을 높이 평가 해주시며 조선로동당 제 1비서의 이름으로 뜨거운 감사와 동지적인사를 보내주셨다. 뜨거운 감사와 동지적인사! 이것은 우리 당조직들과 청년동맹조직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이고 뜨거운 사랑이다. 우리는 그 사랑, 그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감사문에서 밝혀주신대로 청년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각급 당조직들은 청년사업에 당사업 못지 않게 중시하고 청년동맹조직들을 적극 내세워주며 동맹조직이 자기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다하도록 힘껏 떠밀어주어야 합니다.」 청년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당책임일군들부터가 청년교양에 항상 머리를 쓰고 품을 들이며 청년동맹조직들의 자립성과 창발성을 높이는 데 주목을 들리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감사문에서 청년동맹일군들은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무거운 임무를 한시도 잊지 말고 사상단련과

젊은이들로 키우도록 하겠다. 5대교양을 틀어쥐고 사상교양사업을 청년맞이 나래 참신하게 공세적으로 벌이며 정의감이고 당의 의도에 맞게 동맹조직을 쇄소리나 전투대로 꾸리며 5대교양을 틀어쥐고 사상교양사업을 청년맞이 나래 참신하게 공세적으로 벌여나가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청년들을 고상한 정신과 미풍을 지닌 시대의 선구자들로 키워낸 당조직들과 청년동맹조직들에게 보내주신 감사문은 온 나라 청년동맹조직들과 청년들을 무한히 격동시키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감사문을 믿음으로 심장에 새긴 우리 청년들의 기상은 하늘에

닿았다. 사실 우리 청년들을 이처럼 훌륭한 청년들로, 미풍선구자들로 키우신분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런데 그 모든 성과를 우리에게 통째로 돌려주시며 감사문까지 보내주시셨으니 믿음이며 이보다 더 큰 믿음, 사랑이런 이보다 더 뜨거운 사랑이 또 어디 있겠는가. 청년강국의 기상이 전례없이 앙양되고있는 때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감사문을 받아안은것은 주체의 조선청년동맹운동에서 로동계급 특기할 사변이며 온 나라 청년들의 대경사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 주신 감사문의 구절구절을 그대로 우리 청년들을 선군혁명의

정신력을 총괄시켜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펼쳐나갔다. 우리는 청년동맹을 선군혁명의 척후대, 익측부대로 내세워 주시며 청년들을 위해서라면 이 세상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을 심장깊이 새겨안고 선군청년전위대대의 위력을 남김없이 펼쳐나감으로써 당장전 일꾼들을 청년동맹의 새로운 성과로 장식하며 다음에 맞게 되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창립 일흔돐을 백두산대국의 청년대축전으로 맺었기 때문이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전용남

당조직들은 힘있는 포전정치사업으로 농장벌이 짧게 하자

향일유격대식배낭을 메고 제1선참호로

향일유격대식배낭을 메고 농장벌이 짧게 하자. 지난해 이어 올해도 포전정치사업이 활발한 자연조건으로 하여 향일유격대식배낭을 메고 농장벌이 짧게 하자. 지난해 이어 올해도 포전정치사업이 활발한 자연조건으로 하여 향일유격대식배낭을 메고 농장벌이 짧게 하자. 지난해 이어 올해도 포전정치사업이 활발한 자연조건으로 하여 향일유격대식배낭을 메고 농장벌이 짧게 하자.

향일유격대식배낭을 메고 농장벌이 짧게 하자. 지난해 이어 올해도 포전정치사업이 활발한 자연조건으로 하여 향일유격대식배낭을 메고 농장벌이 짧게 하자. 지난해 이어 올해도 포전정치사업이 활발한 자연조건으로 하여 향일유격대식배낭을 메고 농장벌이 짧게 하자.

향일유격대식배낭을 메고 농장벌이 짧게 하자. 지난해 이어 올해도 포전정치사업이 활발한 자연조건으로 하여 향일유격대식배낭을 메고 농장벌이 짧게 하자. 지난해 이어 올해도 포전정치사업이 활발한 자연조건으로 하여 향일유격대식배낭을 메고 농장벌이 짧게 하자.

향일유격대식배낭을 메고 농장벌이 짧게 하자. 지난해 이어 올해도 포전정치사업이 활발한 자연조건으로 하여 향일유격대식배낭을 메고 농장벌이 짧게 하자. 지난해 이어 올해도 포전정치사업이 활발한 자연조건으로 하여 향일유격대식배낭을 메고 농장벌이 짧게 하자.

향일유격대식배낭을 메고 농장벌이 짧게 하자. 지난해 이어 올해도 포전정치사업이 활발한 자연조건으로 하여 향일유격대식배낭을 메고 농장벌이 짧게 하자. 지난해 이어 올해도 포전정치사업이 활발한 자연조건으로 하여 향일유격대식배낭을 메고 농장벌이 짧게 하자.

봉위기를 고조시키는 직관선동

평안북도안의 시, 군 당조직들과 농촌당조직들에서 모내기전투를 비롯한 당면한 영농투투에 당원들과 근로자들, 지인자들을 적극 불러일으키기 위한 직관선동활동을 힘있게 벌여 전투장을 세차게 끓여내게 하고있다.

평안북도안의 시, 군 당조직들과 농촌당조직들에서 모내기전투를 비롯한 당면한 영농투투에 당원들과 근로자들, 지인자들을 적극 불러일으키기 위한 직관선동활동을 힘있게 벌여 전투장을 세차게 끓여내게 하고있다.

평안북도안의 시, 군 당조직들과 농촌당조직들에서 모내기전투를 비롯한 당면한 영농투투에 당원들과 근로자들, 지인자들을 적극 불러일으키기 위한 직관선동활동을 힘있게 벌여 전투장을 세차게 끓여내게 하고있다.

애국충정의 불을 달아준 경제선동

평안남도 당조직들에서

모내기전투가 폐년에 없이 불리한 조건에서 진행되는 오늘날의 현실은 당조직들과 당원들로서도 어려운 정세사업이다. 그러나 당조직들은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발동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여야 합니다. 이때에 평안남도안의 시, 군당조직들에서 벌여나가고 있는 포전집중정치사업에서 주목되는 몇가지를 소개한다.

특색 있는 결의부대.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위해 영농투투에 힘있게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시안의 모든 협동농장에서 결의부대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열백명의 정치사업에 비할바없이 위대한 선동사업이었다.

효율성 있는 집중강연선전대 활동. 《들수록 가슴이 후련해지는 강연》, 《기다려지는 강연》, 이것은 대동군 로병, 공로자 강연강사들의 집중강연선전에 대한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의 찬사를 보여주는 것이다.

포전방송기재들의 자동상태를 확인하고 선전선동투쟁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포전집중정치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벌여나가기에 힘썼다. 출동모임을 체계로 수많은 선전선동수단들과 선동원들이 나왔다. 그중에서 관심은 모은것은 유대용용향응목식메가폰이 늘어났었다. 올해 군안의 많은 농촌선동원들이 선동사업을 진행하는 데서 편리한 유대용용향응목식메가폰을 자체로 마련하여 내놓았던 것이다.

불멸의 정신력으로 기적과 혁신을

최근 가장 화려한 전투장이 전 없이 활기를 띠고있다. 지난 시기 다른 단위에 비해 별로 자랑할만한 것이 없었던 려단이 살림집개건과 도로건설전투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성과의 비결은 이곳 일군들이 청년대원들의 정신력발동을 위한 사업을 방불랐었기 때문이다.

자 강 도 러 단 에 서. 론의가 거듭되었다. 그때 정치부서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그들의 대답하던 가슴이 확연히 울려 퍼졌다. 그는 록예비물 수자적인 방법으로만 쓰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자 강 도 러 단 에 서. 론의가 거듭되었다. 그때 정치부서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그들의 대답하던 가슴이 확연히 울려 퍼졌다. 그는 록예비물 수자적인 방법으로만 쓰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15분과 140%

금야군 청동협동농장 5월초 모내기실적 70%계선 돌파!

금야군 청동협동농장 5월초 모내기실적 70%계선 돌파! 모내기시작 15분과 140% 금야군 청동협동농장 5월초 모내기실적 70%계선 돌파! 모내기시작 15분과 140% 금야군 청동협동농장 5월초 모내기실적 70%계선 돌파!

금야군 청동협동농장 5월초 모내기실적 70%계선 돌파! 모내기시작 15분과 140% 금야군 청동협동농장 5월초 모내기실적 70%계선 돌파! 모내기시작 15분과 140% 금야군 청동협동농장 5월초 모내기실적 70%계선 돌파!

금야군 청동협동농장 5월초 모내기실적 70%계선 돌파! 모내기시작 15분과 140% 금야군 청동협동농장 5월초 모내기실적 70%계선 돌파! 모내기시작 15분과 140% 금야군 청동협동농장 5월초 모내기실적 70%계선 돌파!

금야군 청동협동농장 5월초 모내기실적 70%계선 돌파! 모내기시작 15분과 140% 금야군 청동협동농장 5월초 모내기실적 70%계선 돌파! 모내기시작 15분과 140% 금야군 청동협동농장 5월초 모내기실적 70%계선 돌파!

창의 창발성과 공사실적

남포시려단 항구구역대대에서

창의 창발성과 공사실적. 남포시려단 항구구역대대에서. 남포시려단 항구구역대대에서. 남포시려단 항구구역대대에서. 남포시려단 항구구역대대에서.

창의 창발성과 공사실적. 남포시려단 항구구역대대에서. 남포시려단 항구구역대대에서. 남포시려단 항구구역대대에서. 남포시려단 항구구역대대에서.

창의 창발성과 공사실적. 남포시려단 항구구역대대에서. 남포시려단 항구구역대대에서. 남포시려단 항구구역대대에서. 남포시려단 항구구역대대에서.

창의 창발성과 공사실적. 남포시려단 항구구역대대에서. 남포시려단 항구구역대대에서. 남포시려단 항구구역대대에서. 남포시려단 항구구역대대에서.



모내기제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정치사업을 잘하고있다. -문덕군 봉우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김중훈 찍음

불멸의 령도업적을 빛내이며 10월의 대축전장으로 신심드높이 나아간다

대 흥 단 군 에 서

감자대풍의 자랑안고 경축광장에 들어서리



백두삼천리벌

백두삼천리벌에서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위원의 불멸이 세차게 일고있다.

감자농사에서 통장훈을 불러 백두산결새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빛내이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멋있게 들어서려는것이 대흥단군인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한결같은 지향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감자농사를 잘하는것은 대흥단군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입니다. 대흥단군에서는 당의 의도에 맞게 감자농사를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하며 감자농사에 모든 힘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감자종자싹부우기가 한창이던 지난 4월초, 급격히 내려가기 시작한 기온은 -17℃까지 떨어졌다. 레논에 보기 드문 참으로 긴급한 상황이었다. 그대로 있다면 키중한 감자종자들이 못쓰게 되고 나아가서 올해농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수 있었다.

모든 농장들에서 싹부우기장의 온도를 보장하기 위한 비상대책이 취해졌다. 누가 시킨 사람은 없어도 농업근로자들이 집집마다에서 이불과 모포를 안고 달려나왔다. 일군들의 만류에 그들이 한 대답은 너무나 소박하였다. 그러나 거기에는 진정이 담겨져있었다.

《저야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받들고 달려온 제대군인당원이 아닙니까.》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의 넋이 깃든 감자종자만 얼지 않는다면 우리가 좀 출세 지만다고 할들 그게 무슨 큰일이겠습니까.》

그렇다. 그들에게 있어서 감자종자 한알한알은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심혈과 로고가 깃들고 감자농사혁명의 불씨와도 같은 참으로 귀중한 것이었다. 전투 북부고산지대개혁의 첫 시기부터 10여차례나 멀고 험한 대흥단군을 찾오시여 군이 나아가길 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감자농사

혁명의 포성을 울려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어찌 한 사인들 잊을수 있겠는가.

이렇게 지켜낸 감자종자들이 포전으로 나갈 때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평양하늘을 우러르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감자대풍으로 대대손손 빛내여나갈 지가 그들의 열골마다에 어려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고결한 충정으로 그들은 올해에 수십개의 저수지와 400여개의 굴포를 새로 건설하거나 보수하였으며 유기질복합비료를 지난해보다 1.5배 더 생산하고 저물실어내기도 8일이나 앞당겨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집중수송의 나날 운전사들은 뜨겁 추위속에서도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이 깃들여있는 훈장기재들의 만가등을 보장

하며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었다. 농사통장장과 창평농장에서 부터 시작된 6만 5000여의 거름실어내기가 열흘 남짓한 짧은 기간에 걸쳐서 끝났을 때 티끌이 깨끗한 땅이 되었고 전기줄이 끊어졌으며 수백 정보의 감자밭이 피해를 입었다. 이 땅과 고향을 갈라볼수 없게 된 감자 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피해상황은 대단히 후심하였다.

5월 18일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흥단군을 마지막으로 찾으시던 때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대로는 절대로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도기념일을 맞을수 없다. 한몸이 그대로 바람막이숲이 되고 흙이 되어서라도 감자밭을 살리고 울헤에 이기 위해 감자대풍을 안아오자.

이런 불같은 열정이 농장포전들 마다에서 울려나왔다.

군당위원회와 군 5호농업경영위원회를 비롯한 군급기관 일군들이 농장, 작업반들을 돌아 현지로 내려갔으며 일시에 피해복구전투에 진입하였다. 피해를 입은 감자밭에서는 밤에도 전투가 계속되었다. 전지불과 자동차전동증및속에서 밤을 새운 그들의 심장속에 고동친것은 과연 무었이었던가. 그것은 바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전의 제일이셨을, 선봉투사가 되려는 비상한 각오였으며 감자대풍을 이룩한 자랑안고 10월

의 대축전을 맞이하려는 결사의 의지였다.

수령의 령도업적은 실천으로 빛내여나가야 한다. 앉아서 우는소리나 하고 조전타발이나 하여서는 그가 누구든 수령의 사상과 업적을 빛내기 위한 오늘날의 투쟁에서 뚜렷한 삶의 자욱을 새길수 없다. 몸을 내대고 심장을 바쳐야 하는것이 바로 수령의 유훈관철전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령도업적은 우리의 생명선이다.

이런 열화같은 충정을 지니고 위대한 장군님의 뜻과 념원을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나가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있기에 백두삼천리벌에 감자꽃바다가 설레이고 풍년농작사리가 울려 퍼질 그날이 앞당겨지고있 는것이다.

본사기자 김성남 찍음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흥단은 살기 좋은 고장이라고 뜨거운 정 념치는 친필을 남기신 때로부터 10여년이 흘렀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 멀고 험한 북방의 평길을 넘어 이 군을 찾아 주신 아버지장군님께서 대흥단군은 인민들의 만복이 넘쳐나는 강성국가의 휘황한 실체를 눈앞에 펼쳐보이기 시작하였다고, 이 찬란한 현실은 우리 인민들에게 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고있다고 기쁨에 넘쳐 교시하시였다.

그 잊을수 없는 5월부터 벌써 5년이 지났다.

그 나날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하늘같은 은덕을 한시도 잊지 않고 소문없이 많은 일을 하여 더욱더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을 백두산기슭 대흥단삼천리에 펼쳐놓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님의 유훈이 관철되고 우리 당의 구상이 실현되면 대흥단군이 우리 나라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고장으로 될것입니다.》

키높이 자라 끝없이 설레이는 이팔나무방풍림속에 무연하게 펼쳐진 감자밭들을 바라보는것 도 감개무량하였다.

대흥단군을 펼쳐서 규모있게 들어앉은 소재지마을, 티끌불 하나 찾지 못할 정도로 깨끗하고 아담한 읍거리를 거닐며 느끼게 되는 심정 또한 특별했기였다.

그러나 그보다 우리의 가슴을 울려준것은 이 고장 사람들의 심장바다에 한결같이 간직된 뜨거운 정성이였다.

뜻깊은 올해에도 기어이 감자대풍을 안아오기 위해 두주먹을 쥐고 뛰어다니는 일군들도 만나 보고 수많은 패지들을 걸싸게 관리하는 목장의 나 어린 처녀사양공도 만나보았다.

달마다 어김없이 감자가공제품들과 여러가지 상품들이 아름이렇게 세대마다 공급되는 상업망들, 군자체로 생산한 전기로 도시 사람 부럼치 않은 생활을 즐기는 가정들과 누구나 매일이 찾아가

좋은 음식들을 봉사받을수 있는 국수집을 비롯하여 가는 곳마다에서 우리가 만나본 대흥단사람들이 한결같이 터놓는 가슴울리는 말이 있었다.

《이게 다 우리 장군님의 덕입니다.》

우리 장군님의 덕! 유서깊은 이 고장에 만복의 지상락원을 제일먼저 안아오시려 우리 장군님 기어이신 그 로고와 심혈이 인민의 가장 가까운 생활에서부터 열매를 맺어 그들의 심장마다에 비문처럼 새겨진 말이다.

대흥단사람들은 누구나 우리 장군님덕에 꽃피는 자기들의 행복한 생활을 더욱 문명하고 유족하게 꾸려나가는것이 그의 령도업적을 빛내이고 하늘같은 은덕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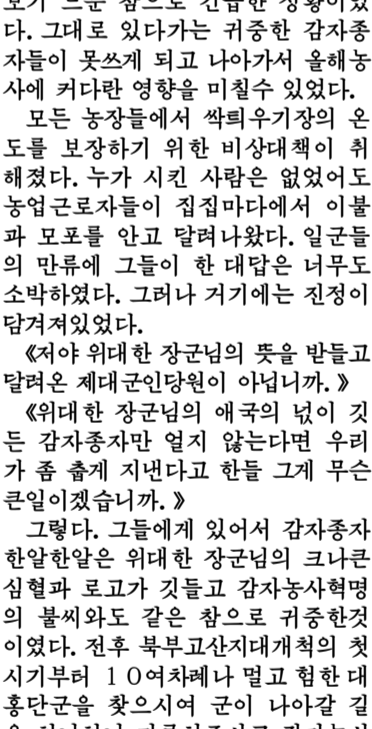
그들은 이런 열망을 안고 온 군이 펼쳐나 불과 1년 발전한 기간에 군안의 여러개의 발전소들에 대한 설비건설 및 개건전투를 힘있게 벌려 전력생산능력을 훨씬 높였으며 지금도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벌려나가고있다.

생산능력을 1.5배로 높여 지난해에 수만의 제품을 더 생산한 굴지의 감자가공기지 대흥단감자가공공장에서 이룩한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인민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있다.

이미 튼튼한 토대를 갖춘 군안의 10여개 목장들에서는 장엄한 종축제와 과학적인 사양관리를 통해 고기생산능력을 향상시켜 군인민들에 대한 정상공급과 금양봉사활동에 이바지하고있다.

아담한 살림집들이 해마다 일떠서고 지난해에는 읍거리를 가로지른 소흥단수물결위에 특색있게 로라스캐트장도 건설된 군소재지에 지금은 또 산골도시의 이채로운 풍경을 한껏 물구며 수령까지 전성되고있어 정말 대흥단군을 낚시 갈수록 더욱더 살기 좋은 고장으로 그 모습을 일신하고있다.

본사기자 한충혁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펼쳐나선 대흥단군 창평농장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2015년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투자설명회 진행

2015년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투자설명회가 27일 금강산에서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운영석위원장을 비롯한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개발추진위원회 성원들과 세계해외조선인무역협회 대변자 회대표단, 중국 룡녕북서발전유한공사대표단, 중국 룡녕호북발전유한공사대표단, 룡녕동북아경제문화축전회대표단, 중국 홍콩글로벌사업투자집단유한공사대표단, 스페리에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손님들, 주조 여러 나라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투자설명회에서는 축하연설들이 있었다.

운영석위원장은 공화국정부는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를 짧은 시간에 개발하기 위하여 총계획을 전방성있게 세우고 그에 따라 지구별 세부계획을 완성해나가고 있다고 하면서 이 지대는 오래지 않아 세계적인 관광 중심지로, 경제 문화 교류의 활무대로 변모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호동 중국 홍콩글로벌사업투자집단유한공사 총경리는 조선방문을 통하여 조선인민이 경

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잘 알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는 금강산은 경치가 아름다 운 명승지라고 하면서 앞으로 세계의 이름있는 투자자들의 협력에 의하여 금강산이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에 대한 소개편찬물이 상영된 다음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개발전략에 대하여》, 《금강산 국제관광지구 개발전략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법률적환경에 대하여》, 《시중호차시구 개발전략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지고있는 지대개발의 전망과 유리성 등이 언급되었다.

해외동포기업가들과 여러 나라의 투자자들, 전문가들의 관심속에 진행된 투자설명회는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의 개발전략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고 가치있는 투자기회를 마련할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조선중앙통신】

여 종원들의 열의를 북돋아 주었다.

이들뿐이 아니었다. 기관차에 내는 해주철도분국 당위원회 책임일군도 도로차들과 함께 경기를 하여 체육열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이날의 경기들을 통하여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는데 대한 당정책의 정당성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은 기관차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대중체육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리며 건강한 몸으로 당면한 화물수송에서 혁신을 일으킬 결의에 넘쳐있었다.

특파기자 리승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제 인민이 체육을 즐겨하고 온 나라가 체육열기로 들끓게 하여야 하겠습 니다.》

아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새겨져있는 해주철도분국 해주기관차대에서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고있다. 기관차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체육의 날을 맞으며 건강레전드와 대중물동체조를 진행한 다음 비탈장기기와 배구경기를 진행하였다.

이날 종원들의 관심을 모은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해주철도분국 해주기관차대에서

것은 운전대대의 수리중대, 정비중대간 배구경기가 있었다.

작명위원장은 리승철동무의 말에 의하면 배구경기는 분국적으로도 앞서리를 양보하지 않고있는데 얼마전에 진행된 분국적인 경기에서 1등의 영예를 떨쳤다고 한다.

그렇서인지 경기는 첫시작부터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그들속에는 당면한 영농물자수송에 전진까지 두들기 케드우에서 기관차를 몰아가던 내연

640호 책임기관사 리승철동무와 내연405호 기관조사 운영봉동무도 있었다. 예제는 5.18부사교정시건인초과운동의 불길높이 화물수송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오늘을 경기에서 주역을 하고있는 이곳 수송진사들...

기관차의 운행과 수리, 기술발전사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해 오고있는 참모총장 황경일동무를 비롯한 기관차대의 당, 행정일군들도 여러 경기들에 참가하

여 종원들의 열의를 북돋아 주었다.

이들뿐이 아니었다. 기관차에 내는 해주철도분국 당위원회 책임일군도 도로차들과 함께 경기를 하여 체육열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이날의 경기들을 통하여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는데 대한 당정책의 정당성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은 기관차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대중체육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리며 건강한 몸으로 당면한 화물수송에서 혁신을 일으킬 결의에 넘쳐있었다.

특파기자 리승철

6월 상순까지 예견되는 기상조건과 논벼, 강병이농사대책

1~3%정도 낮고 평안남북도, 량강도, 강원도에서 1~5%정도 높겠으며 그밖의 지방에서는 지난해정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논벼농사에서는 벼모내기 작업을 적기에 질적으로 하며 벼모관리를 잘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모내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물조건이 보장되는 단위들에서는 모내기를 빨리 끝내도록 하며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질적으로 하여 모살이물을 무조건 100%로 보장하여야 한다.

벼모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물은 씨메민적을 최대한 줄이며 마른논에서 물을 채워서 물을 대고 수평을 맞춘 다음 모내기를 질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벼모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물은 씨메민적을 최대한 줄이며 마른논에서 물을 채워서 물을 대고 수평을 맞춘 다음 모내기를 질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물이 지속되는 조건에서 모판에서의 속이주기, 일자기 등 여러가지 방법을 리용하여 벼모가 지내 자라지 않도록 하 고 영양관리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벼모수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감잡이와 병충해막이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모살이가 끝나면 물보장조건을 고려하여 이지비료를 제때에 주어야 한다. 자리에 의하면 아 지비료를 7~10cm 깊이에 묻어주는 경우 2배정도의 비료효 과를 보였고 이삭수가 원만한 확 보되어 정모당 수출도 높아졌다 고 한다. 또한 천수답에서 벼모 를 옮겨심고 물을 한번도 대지 못한 상태에서 일터벼모수기를 5~7일간격으로 자주 하여 7월 중순까지 아지수를 1200대이상 확보할수 있었다고 한다.

물이 부족한 조건에서 생육시기별 살초제기를 규정 대로 진행하여 김발생을 철저히 억제하는것과 함께 비닐과리, 버물고기리벌레 등 병해충에 의한 피해막이대책도 빈틈없이 세워야 한다.

심한 가물로 모판과 모내기 한 논에서 벼가 소금기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

간식지논이나 소금기함량이 0.05~0.1%인 대동강물로 벼모를 키우는 단위들에서는 모판에 물을 철저히 대고 벼모를 키우며 2일간격으로 물갈이

를 진행하면서 2~2.5일 시까지의 모키의 1/2정도, 3일 이후시부터는 1/3정도로 물을 깊이 대주어야 한다. 또한 모내기전후의 물관리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모내기후 전중비료와 모살이비료를 주지 않도록 하며 살초제기는 논벼생육이 정상상태로 회복된 다음에 하여야 한다. 모내기를 하였지만 물원천이 전혀 없거나 물을 댈수 없는 단위들에서는 6월 10일경에 강병이를 비롯한 알곡작물들의 종자를 영양단지로 키우다가 벼모가 달 리는 경우 다시 옮겨심도록 하여야 한다.

강병이농사에서는 김매기와 후지질을 잘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밭김매기와 후지질을 과학 기술적요구대로 진행하며 강병이와 감자를 겹재배하는 조건들에서 절보장을 첫지리에 놓고 후지질을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비료주는 양이 적은 강병이밭에서는 대응비료를 추가 위한 대책을 제때에 세워 주기생육을 안전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농작물생육예보지휘부

고상하고 건전한 사회주의도덕기풍과 우리 생활

생산 총화 모임에서 받은 충격

북창가정용품공장 일군들

그 어느 단위를 막론하고 집단안에 고상하고 건전한 도덕기풍이 차분할 때 혁명사업수행에서도 좋은 결실을 가져오기 마련이다. 우리는 이것을 북창가정용품공장 일군들과 노동자들의 생활을 통해서도 깊이 느낄 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이 문화도덕생활을 잘하고 공중도덕을 자각적으로 지켜야 사회에 고상하고 건전한 생활기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난 4월말 공장의 월생산 총화모임에서였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과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공구조의 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고 공장이 4월에도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한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총화되었다.

지배인 최창호동무는 만족한 애조로 이렇게 결속하였다. **《압력, 주물, 세척 등 모든 작업법에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프레작업반의 성과가 큼니다.》**

그럼 총화는 이만하고 프레작업반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는지 어떻습니까? **《어떤 일군이 우리 당이 바라는 고상한 인격자인가?》**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얼마전 어느 한 중앙기판의 일군과 만난 자리에서 찾을 수 있었다.

우리와 만난 그 일군은 보풀이 일 정도로 보글 보글 《로동신문》을 펼쳐보이는 것이었다. **《이런 화상으로 얼굴에 심한 상처를 입었던 대담자의 평범한 노동자처럼 땀을 흘리며 바친 조선적십자합병원의 미용과 과장 림철동무와 림승수가 일하는 공장 초급당비서 리춘일동무의 소행에 대한 기사를 실리려는 신문이었다.》**

《나는 항상 이 대목을 보면서 자기가 서야 할 앞자리와 뒤자리를 자각하곤 합니다.》 **《특별히 높은 고상한 기사의 한 대목이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그는 올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장을 찾으신 날을 때 원수님께서 지난해에 훌륭한 병사의 어머니라고 높이 평가하신 대담자의 어머니 정선영의 남편이 바로 공장 초급당비서 리춘일이라고 기대에 말없이 서있는 평범한 선반공에 대하여 자랑담이 말씀드렸으며 원수님을 모시고 공장 일군들이 사전을 켜게 된 영광의 자리에서도 한열에 서있던 혁명사적교양실 강사를 제대군인강사라고 원수님께서 애이고 자기 자리를 내어 그**

우 리 지 배 인

집단의 선망을 받는 사람들

문헌시에 가면 종업원들 로부터 존경받는 한 일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그가 바로 문헌시사회 규양관리소 지배인 최광림 동무이다.

우 리 지 배 인 그는 말하하였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질 않습니까, 일군인 저자신부터가 고상한 도덕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했을까마는 아닙니다.》**

그의 모습이 돋보이는 것은 **《아바이한테서 선반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는 돌도 없는 자랑이랍니다.》**

너 교원 과 스승 들 **《안주시 덕성고급중학교 교원 리순녀동무가 16년전 모교의 교원으로 배치되어 왔을 때 옛 스승들은 그를 반갑게 일싸안으며 후대교육사업에 함께 헌신하자고 뜨거운 약속을 나누었다.》**

한시도 늦출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 것이 계급교양이다

보금자리를 통해 본 밝은 미래, 암담한 래일

얼마전 우리가 미려파학자거리건설장을 찾았을 때였다. **《아름다운 미래를 앞당기며 폭풍쳐 내달리는 선군조선의 기상을 보여주듯 경쟁적일기상을 보여주고 초고층상림집을 조들을 바라보고있는데 방송선진차에서 울리는 노래소리가 사람들의 가슴을 후뭏게 해주었다.》**

가슴 울림을 젖는 행복 날마다 커가는 세월 오늘 이렇게 좋은데 우리의 레일 더 좋으리 **《...뜨거운 마음으로 발견을 옮기는 우리의 머리속에는 지난해 대담장면에 맺혔던 일편진 새살림집을 배정받고 기쁨에 겨워있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공공과학자의 집을 찾았을 때의 일이 생각났다.》**

가슴 울림을 젖는 행복 날마다 커가는 세월 오늘 이렇게 좋은데 우리의 레일 더 좋으리 **《...뜨거운 마음으로 발견을 옮기는 우리의 머리속에는 지난해 대담장면에 맺혔던 일편진 새살림집을 배정받고 기쁨에 겨워있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공공과학자의 집을 찾았을 때의 일이 생각났다.》**

가슴 울림을 젖는 행복 날마다 커가는 세월 오늘 이렇게 좋은데 우리의 레일 더 좋으리 **《...뜨거운 마음으로 발견을 옮기는 우리의 머리속에는 지난해 대담장면에 맺혔던 일편진 새살림집을 배정받고 기쁨에 겨워있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공공과학자의 집을 찾았을 때의 일이 생각났다.》**

가슴 울림을 젖는 행복 날마다 커가는 세월 오늘 이렇게 좋은데 우리의 레일 더 좋으리 **《...뜨거운 마음으로 발견을 옮기는 우리의 머리속에는 지난해 대담장면에 맺혔던 일편진 새살림집을 배정받고 기쁨에 겨워있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공공과학자의 집을 찾았을 때의 일이 생각났다.》**

가슴 울림을 젖는 행복 날마다 커가는 세월 오늘 이렇게 좋은데 우리의 레일 더 좋으리 **《...뜨거운 마음으로 발견을 옮기는 우리의 머리속에는 지난해 대담장면에 맺혔던 일편진 새살림집을 배정받고 기쁨에 겨워있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공공과학자의 집을 찾았을 때의 일이 생각났다.》**

단상

개 여 진 환 상

우 리 앞 에 깨 여 진 사 발 조 각 이 있다. **《...그런데 이 때는 때로부터 얼마 후 현상치를 뒤늦게야 끝마치고 점검법들을 펼치며 매었다. 불꽃 기업소의 일군들**

우 리 앞 에 깨 여 진 사 발 조 각 이 있다. **《...그런데 이 때는 때로부터 얼마 후 현상치를 뒤늦게야 끝마치고 점검법들을 펼치며 매었다. 불꽃 기업소의 일군들**

우 리 앞 에 깨 여 진 사 발 조 각 이 있다. **《...그런데 이 때는 때로부터 얼마 후 현상치를 뒤늦게야 끝마치고 점검법들을 펼치며 매었다. 불꽃 기업소의 일군들**

우 리 앞 에 깨 여 진 사 발 조 각 이 있다. **《...그런데 이 때는 때로부터 얼마 후 현상치를 뒤늦게야 끝마치고 점검법들을 펼치며 매었다. 불꽃 기업소의 일군들**

원주들의 죄행을 순간도 잊지 않도록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자체의 힘으로 계급교양자료를 수많은 일군들을 교육하는데 계급교양을 리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새로 발굴한 사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자체의 힘으로 계급교양자료를 수많은 일군들을 교육하는데 계급교양을 리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새로 발굴한 사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자체의 힘으로 계급교양자료를 수많은 일군들을 교육하는데 계급교양을 리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새로 발굴한 사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자체의 힘으로 계급교양자료를 수많은 일군들을 교육하는데 계급교양을 리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새로 발굴한 사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자체의 힘으로 계급교양자료를 수많은 일군들을 교육하는데 계급교양을 리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새로 발굴한 사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자체의 힘으로 계급교양자료를 수많은 일군들을 교육하는데 계급교양을 리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새로 발굴한 사

우리 식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켜나갈 결의에 넘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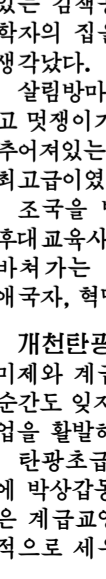
우 리 앞 에 깨 여 진 사 발 조 각 이 있다. **《...그런데 이 때는 때로부터 얼마 후 현상치를 뒤늦게야 끝마치고 점검법들을 펼치며 매었다. 불꽃 기업소의 일군들**

우 리 앞 에 깨 여 진 사 발 조 각 이 있다. **《...그런데 이 때는 때로부터 얼마 후 현상치를 뒤늦게야 끝마치고 점검법들을 펼치며 매었다. 불꽃 기업소의 일군들**

우 리 앞 에 깨 여 진 사 발 조 각 이 있다. **《...그런데 이 때는 때로부터 얼마 후 현상치를 뒤늦게야 끝마치고 점검법들을 펼치며 매었다. 불꽃 기업소의 일군들**

우 리 앞 에 깨 여 진 사 발 조 각 이 있다. **《...그런데 이 때는 때로부터 얼마 후 현상치를 뒤늦게야 끝마치고 점검법들을 펼치며 매었다. 불꽃 기업소의 일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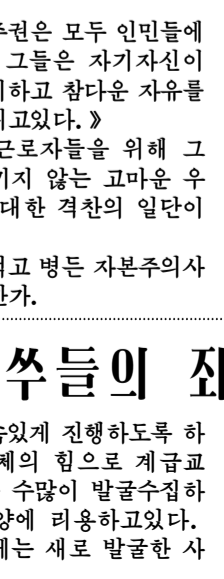
우 리 앞 에 깨 여 진 사 발 조 각 이 있다. **《...그런데 이 때는 때로부터 얼마 후 현상치를 뒤늦게야 끝마치고 점검법들을 펼치며 매었다. 불꽃 기업소의 일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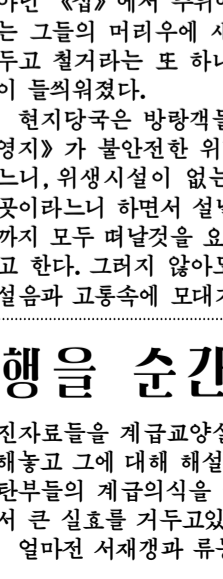
우 리 식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켜나갈 결의에 넘쳐 있다. -중앙계급교양관에서- 본사기자 찍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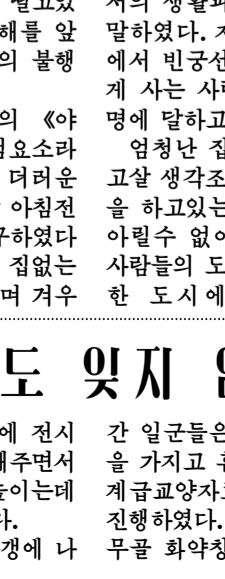
우 리 앞 에 깨 여 진 사 발 조 각 이 있다. **《...그런데 이 때는 때로부터 얼마 후 현상치를 뒤늦게야 끝마치고 점검법들을 펼치며 매었다. 불꽃 기업소의 일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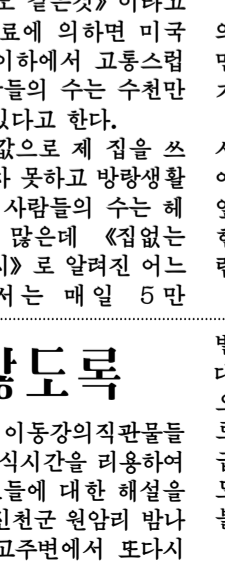
우 리 앞 에 깨 여 진 사 발 조 각 이 있다. **《...그런데 이 때는 때로부터 얼마 후 현상치를 뒤늦게야 끝마치고 점검법들을 펼치며 매었다. 불꽃 기업소의 일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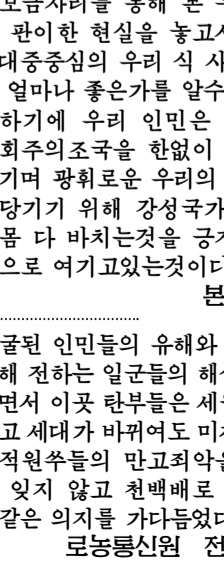
우 리 앞 에 깨 여 진 사 발 조 각 이 있다. **《...그런데 이 때는 때로부터 얼마 후 현상치를 뒤늦게야 끝마치고 점검법들을 펼치며 매었다. 불꽃 기업소의 일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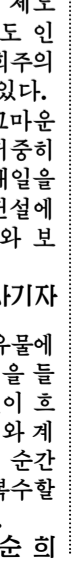
우 리 앞 에 깨 여 진 사 발 조 각 이 있다. **《...그런데 이 때는 때로부터 얼마 후 현상치를 뒤늦게야 끝마치고 점검법들을 펼치며 매었다. 불꽃 기업소의 일군들**



우 리 앞 에 깨 여 진 사 발 조 각 이 있다. **《...그런데 이 때는 때로부터 얼마 후 현상치를 뒤늦게야 끝마치고 점검법들을 펼치며 매었다. 불꽃 기업소의 일군들**



우 리 앞 에 깨 여 진 사 발 조 각 이 있다. **《...그런데 이 때는 때로부터 얼마 후 현상치를 뒤늦게야 끝마치고 점검법들을 펼치며 매었다. 불꽃 기업소의 일군들**



우 리 앞 에 깨 여 진 사 발 조 각 이 있다. **《...그런데 이 때는 때로부터 얼마 후 현상치를 뒤늦게야 끝마치고 점검법들을 펼치며 매었다. 불꽃 기업소의 일군들**



우 리 앞 에 깨 여 진 사 발 조 각 이 있다. **《...그런데 이 때는 때로부터 얼마 후 현상치를 뒤늦게야 끝마치고 점검법들을 펼치며 매었다. 불꽃 기업소의 일군들**



우 리 앞 에 깨 여 진 사 발 조 각 이 있다. **《...그런데 이 때는 때로부터 얼마 후 현상치를 뒤늦게야 끝마치고 점검법들을 펼치며 매었다. 불꽃 기업소의 일군들**



우 리 앞 에 깨 여 진 사 발 조 각 이 있다. **《...그런데 이 때는 때로부터 얼마 후 현상치를 뒤늦게야 끝마치고 점검법들을 펼치며 매었다. 불꽃 기업소의 일군들**



우 리 앞 에 깨 여 진 사 발 조 각 이 있다. **《...그런데 이 때는 때로부터 얼마 후 현상치를 뒤늦게야 끝마치고 점검법들을 펼치며 매었다. 불꽃 기업소의 일군들**



우 리 앞 에 깨 여 진 사 발 조 각 이 있다. **《...그런데 이 때는 때로부터 얼마 후 현상치를 뒤늦게야 끝마치고 점검법들을 펼치며 매었다. 불꽃 기업소의 일군들**

천추에 용납 못할 박근혜의 만고죄악을 고발한다

조국통일연구원 백서

극악한 《유신》독재의 후엔 박근혜가 청와대안방에 들어앉은지도 2년이 지났다. 돌이켜보면 민족분열사에 동족대결과 사대매국, 파쇼통치에 악명떨친 군사강제, 독재자들이 적지 않지만 박근혜와 같이 집권 2년여기간 민족앞에 헤아릴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회색의 악녀는 일체기 없었다. 그 가운데서도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대결과 북침전쟁연습에 광분하

면서 거베의 통일념원을 짓밟고 《유신》독재와 파쇼통치부활로 남조선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참혹한 폐허지대로 전락시킨 죄악이야말로 천추를 두고 용서받을수 없는 반민족적, 반인륜적대범죄이다. 조국통일연구원은 동족대결과 사대매국, 파쇼통치에 환장이 되어 온갖 범죄적대행위를 저지른 박근혜의 죄악을 만천하에 고발하기 위해 이 백서를 발표한다.

세우고 체제대결을 로골적으로 추구해왔다. 그 대표적인것이 바로 박근혜가 입버릇처럼 외워낸 《통일대박》이고 《통일준비》이다. 녀는 말할마다 《도기로 100만개 지 적었는데 안면이간 나무가 101만개에 쓰러지게 될것》이라는 망발을 늘어놓으며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라는것을 내오고 《통일인 직 집 그 위원장이 되어 체제대결에 광분하였다.

내부적으로는 《통일원장》이요, 《통일헌법》이요 하는것을 조작하는데 달랠불고 외부적으로는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저들주의의 《통일》이 성사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구걸질하는데 여념이 되었다. 박근혜의 이러한 체제대결책동이 어느 정도에 달하였는가 하는것은 그 줄개들속에서 《2015년에는 죽음을 각오하고 자유민주주의통일을 이룩하자.》는 망발이 거러걸었이 되어나오고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 정종욱이 《홍수통일팀》이 조직되어도 지시 가능하다니이니 뭐니 하고 합부로 지껄어냈건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그러나하면 미군도 성능검증이 되지 않아 도입을 꺼려하는 고고도로 격미싸일 《사드》를 수십억US\$를 주고 남조선에 끌어들이려고 발광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남조선강점 미군유지비를 그전보다 5.8%나 올려주고도 일기가 끝날 때까지 15%를 더 인상하기로 하였는가 하면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이 응당 물어야 할 군사기자들의 환경오염정화비용까지도 모두 떠맡았다.

박근혜는 남조선인민들의 혈세를 미국산 무기구입의 명목으로 상진에게 퍼주는 친미사태행위도 일삼았다. 집권 2년사이에만도 각종 미싸일과 지능기, 전술비행선 등 값싼대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는데 수억US\$를 낭진하였으며 올해에는 동족을 겨냥한 미싸일방위체계구축에 필요한 고고도무인정찰기와 지상대공중요격미싸일체계, 이즈스구축함전투체계 등의 구입에 무려 수십억US\$를 쏟아부어 주고 있다.

지역에 대한 군사적대결을 추구하는 미국의 전략에 적극 추종해나선데서 더욱 드러났다. 박근혜는 미본토핵무력까지 동원하여 우리를 선제 타격한다는 《맞출형억제전략》, 북남무력충돌을 일으킬 《국지도발공동대미계획》, 우리의 핵 및 미싸일기자들을 선제적으로 《탐지》, 《방어》, 《교란》, 《파괴》한다는 《4D작전계획》이라는것까지 들고다니며 북침전쟁연습에 미쳐달랐다.

극악한 체제대결책동으로 북남관계를 결판낸 반통일적죄악

박근혜가 민족앞에 저지른 죄악중의 가장 큰 죄악은 우리의 체제와 존엄을 악랄하게 중상모독하며 동족대결장판으로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은것이다. 박근혜는 《대통령》자리에 올라앉은 첫날부터 갖은 악담과 황당한 궤변으로 대외상대방인 우리를 심히 자극하며 대결에 광분해왔다. 집권초기에 벌써 《북핵위협》을 떠들며 대결본색을 드러낸 박근혜는 2013년 3월 우리가 경제선봉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제시한데 대해 개겨품을 물고 《불가능한 목표》라느니, 《도박》이고 《학각》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제일 앞장에서 악의적으로 시비중상하였다.

박근혜는 집권후 지금까지 반공화국모략단체들에 거액의 자금을 대주고 보수언론과여 증언이며중이 인건쓰레기들까지 동원하여 반공화국모략사포소동에 미쳐달라졌으며 이로 하여 북남관계는 총포탄이 오가는 협박한 지경에 이르러 되었다. 오죽하면 남조선내부에서조차 한장의 피라로 하여 전쟁이 일어날수 있다는 각계의 항의가 비발치로 벌어진 《국외》에서까지 비발치로 금지시켜야 한다는 판결과 결의안을 내놓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이른바 《표현의 자유》를 떠들면서 비발치로 금지시키질수 없다고 살기를 내뿜다 못해 나철한 인간쓰레기들을 청와대에 끌어들이고 여기저기 끌고다니며 반공화국모략나발을 불어대게 하였다. 박근혜가 얼마나 체제대결에 환장이 되었는가 하는것은 지난해 피괴국제회의들에서 입만 터지면 《북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경제발전은 이룰수 없고 고립만을 가져올것이다.》라느니 뭐니 하고 쉼없이 하였다. 박근혜는 우리의 병진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날로 파시되고 그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와 찬란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는 오늘에 와서까지도 이러한 악담을 계속 늘어놓고있다.

박근혜의 체제대결책동은 일본상선을 섬기는데서도 마찬가지였다. 일제통치시기 련서까지 쓰고 일본군에 지원일대하여 애국자들에 대한 탄압에 광분하였던 애비의 피를 그스란히 흘려받은 박근혜는 집권하자마자 친일매국노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박근혜가 집권하여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미화분석하는 역사교과서를 검정에서 통과시킨 친일매국군들을 군사안전위원회 위원장 등 역사관련분야의 요직들에 올려앉힌것은 그 일화이다. 친일사대의식이 체질화된 박근혜는 날로 로골화되고있는 일본반동들의 군국주의부활과 제정책동에 대해서도 항변은커녕 오히려 더욱 아무 허버 모조질해나갔다.

또한 지난해 4월 남조선에서 행각한 오비미당에 《북의 병진로선은 실제할수밖에 없다.》고 떠벌어댄이어서 11월에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 수뇌자회의를 비롯한 여러 국제회의들에서 입만 터지면 《북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경제발전은 이룰수 없고 고립만을 가져올것이다.》라느니 뭐니 하고 쉼없이 하였다. 박근혜는 우리의 병진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날로 파시되고 그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와 찬란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는 오늘에 와서까지도 이러한 악담을 계속 늘어놓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이른바 《표현의 자유》를 떠들면서 비발치로 금지시키질수 없다고 살기를 내뿜다 못해 나철한 인간쓰레기들을 청와대에 끌어들이고 여기저기 끌고다니며 반공화국모략나발을 불어대게 하였다. 박근혜가 얼마나 체제대결에 환장이 되었는가 하는것은 지난해 피괴국제회의들에서 입만 터지면 《북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경제발전은 이룰수 없고 고립만을 가져올것이다.》라느니 뭐니 하고 쉼없이 하였다. 박근혜는 우리의 병진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날로 파시되고 그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와 찬란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는 오늘에 와서까지도 이러한 악담을 계속 늘어놓고있다.

박근혜의 체제대결책동은 일본상선을 섬기는데서도 마찬가지였다. 일제통치시기 련서까지 쓰고 일본군에 지원일대하여 애국자들에 대한 탄압에 광분하였던 애비의 피를 그스란히 흘려받은 박근혜는 집권하자마자 친일매국노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박근혜가 집권하여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미화분석하는 역사교과서를 검정에서 통과시킨 친일매국군들을 군사안전위원회 위원장 등 역사관련분야의 요직들에 올려앉힌것은 그 일화이다. 친일사대의식이 체질화된 박근혜는 날로 로골화되고있는 일본반동들의 군국주의부활과 제정책동에 대해서도 항변은커녕 오히려 더욱 아무 허버 모조질해나갔다.

박근혜의 체제대결책동은 일본상선을 섬기는데서도 마찬가지였다. 일제통치시기 련서까지 쓰고 일본군에 지원일대하여 애국자들에 대한 탄압에 광분하였던 애비의 피를 그스란히 흘려받은 박근혜는 집권하자마자 친일매국노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박근혜가 집권하여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미화분석하는 역사교과서를 검정에서 통과시킨 친일매국군들을 군사안전위원회 위원장 등 역사관련분야의 요직들에 올려앉힌것은 그 일화이다. 친일사대의식이 체질화된 박근혜는 날로 로골화되고있는 일본반동들의 군국주의부활과 제정책동에 대해서도 항변은커녕 오히려 더욱 아무 허버 모조질해나갔다.

박근혜가 민족앞에 저지른 또 하나의 죄악은 추악한 사대매국으로 민족의 자주권을 존엄을 해치고 외세와의 북침전쟁책동으로 핵전쟁위협을 끌어온것이다. 박근혜는 집권 전기간 미국상선의 구린내나는 사탕수니에만 붙어다니면서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강그리 발악하였다.

박근혜가 민족앞에 저지른 또 하나의 죄악은 추악한 사대매국으로 민족의 자주권을 존엄을 해치고 외세와의 북침전쟁책동으로 핵전쟁위협을 끌어온것이다. 박근혜는 집권 전기간 미국상선의 구린내나는 사탕수니에만 붙어다니면서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강그리 발악하였다.

박근혜가 민족앞에 저지른 또 하나의 죄악은 추악한 사대매국으로 민족의 자주권을 존엄을 해치고 외세와의 북침전쟁책동으로 핵전쟁위협을 끌어온것이다. 박근혜는 집권 전기간 미국상선의 구린내나는 사탕수니에만 붙어다니면서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강그리 발악하였다.

박근혜가 민족앞에 저지른 또 하나의 죄악은 추악한 사대매국으로 민족의 자주권을 존엄을 해치고 외세와의 북침전쟁책동으로 핵전쟁위협을 끌어온것이다. 박근혜는 집권 전기간 미국상선의 구린내나는 사탕수니에만 붙어다니면서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강그리 발악하였다.

박근혜가 민족앞에 저지른 또 하나의 죄악은 추악한 사대매국으로 민족의 자주권을 존엄을 해치고 외세와의 북침전쟁책동으로 핵전쟁위협을 끌어온것이다. 박근혜는 집권 전기간 미국상선의 구린내나는 사탕수니에만 붙어다니면서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강그리 발악하였다.

박근혜가 민족앞에 저지른 또 하나의 죄악은 추악한 사대매국으로 민족의 자주권을 존엄을 해치고 외세와의 북침전쟁책동으로 핵전쟁위협을 끌어온것이다. 박근혜는 집권 전기간 미국상선의 구린내나는 사탕수니에만 붙어다니면서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강그리 발악하였다.

박근혜가 민족앞에 저지른 또 하나의 죄악은 추악한 사대매국으로 민족의 자주권을 존엄을 해치고 외세와의 북침전쟁책동으로 핵전쟁위협을 끌어온것이다. 박근혜는 집권 전기간 미국상선의 구린내나는 사탕수니에만 붙어다니면서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강그리 발악하였다.

박근혜가 민족앞에 저지른 또 하나의 죄악은 추악한 사대매국으로 민족의 자주권을 존엄을 해치고 외세와의 북침전쟁책동으로 핵전쟁위협을 끌어온것이다. 박근혜는 집권 전기간 미국상선의 구린내나는 사탕수니에만 붙어다니면서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강그리 발악하였다.

박근혜가 민족앞에 저지른 또 하나의 죄악은 추악한 사대매국으로 민족의 자주권을 존엄을 해치고 외세와의 북침전쟁책동으로 핵전쟁위협을 끌어온것이다. 박근혜는 집권 전기간 미국상선의 구린내나는 사탕수니에만 붙어다니면서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강그리 발악하였다.

박근혜가 민족앞에 저지른 또 하나의 죄악은 추악한 사대매국으로 민족의 자주권을 존엄을 해치고 외세와의 북침전쟁책동으로 핵전쟁위협을 끌어온것이다. 박근혜는 집권 전기간 미국상선의 구린내나는 사탕수니에만 붙어다니면서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강그리 발악하였다.

박근혜가 민족앞에 저지른 또 하나의 죄악은 추악한 사대매국으로 민족의 자주권을 존엄을 해치고 외세와의 북침전쟁책동으로 핵전쟁위협을 끌어온것이다. 박근혜는 집권 전기간 미국상선의 구린내나는 사탕수니에만 붙어다니면서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강그리 발악하였다.

박근혜가 민족앞에 저지른 또 하나의 죄악은 추악한 사대매국으로 민족의 자주권을 존엄을 해치고 외세와의 북침전쟁책동으로 핵전쟁위협을 끌어온것이다. 박근혜는 집권 전기간 미국상선의 구린내나는 사탕수니에만 붙어다니면서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강그리 발악하였다.

박근혜가 민족앞에 저지른 또 하나의 죄악은 추악한 사대매국으로 민족의 자주권을 존엄을 해치고 외세와의 북침전쟁책동으로 핵전쟁위협을 끌어온것이다. 박근혜는 집권 전기간 미국상선의 구린내나는 사탕수니에만 붙어다니면서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강그리 발악하였다.

박근혜가 민족앞에 저지른 또 하나의 죄악은 추악한 사대매국으로 민족의 자주권을 존엄을 해치고 외세와의 북침전쟁책동으로 핵전쟁위협을 끌어온것이다. 박근혜는 집권 전기간 미국상선의 구린내나는 사탕수니에만 붙어다니면서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강그리 발악하였다.

박근혜가 민족앞에 저지른 또 하나의 죄악은 추악한 사대매국으로 민족의 자주권을 존엄을 해치고 외세와의 북침전쟁책동으로 핵전쟁위협을 끌어온것이다. 박근혜는 집권 전기간 미국상선의 구린내나는 사탕수니에만 붙어다니면서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강그리 발악하였다.

박근혜가 민족앞에 저지른 또 하나의 죄악은 추악한 사대매국으로 민족의 자주권을 존엄을 해치고 외세와의 북침전쟁책동으로 핵전쟁위협을 끌어온것이다. 박근혜는 집권 전기간 미국상선의 구린내나는 사탕수니에만 붙어다니면서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강그리 발악하였다.

박근혜가 민족앞에 저지른 또 하나의 죄악은 추악한 사대매국으로 민족의 자주권을 존엄을 해치고 외세와의 북침전쟁책동으로 핵전쟁위협을 끌어온것이다. 박근혜는 집권 전기간 미국상선의 구린내나는 사탕수니에만 붙어다니면서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강그리 발악하였다.

박근혜가 민족앞에 저지른 또 하나의 죄악은 추악한 사대매국으로 민족의 자주권을 존엄을 해치고 외세와의 북침전쟁책동으로 핵전쟁위협을 끌어온것이다. 박근혜는 집권 전기간 미국상선의 구린내나는 사탕수니에만 붙어다니면서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강그리 발악하였다.

박근혜가 민족앞에 저지른 또 하나의 죄악은 추악한 사대매국으로 민족의 자주권을 존엄을 해치고 외세와의 북침전쟁책동으로 핵전쟁위협을 끌어온것이다. 박근혜는 집권 전기간 미국상선의 구린내나는 사탕수니에만 붙어다니면서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강그리 발악하였다.

박근혜가 민족앞에 저지른 또 하나의 죄악은 추악한 사대매국으로 민족의 자주권을 존엄을 해치고 외세와의 북침전쟁책동으로 핵전쟁위협을 끌어온것이다. 박근혜는 집권 전기간 미국상선의 구린내나는 사탕수니에만 붙어다니면서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강그리 발악하였다.

박근혜가 민족앞에 저지른 또 하나의 죄악은 추악한 사대매국으로 민족의 자주권을 존엄을 해치고 외세와의 북침전쟁책동으로 핵전쟁위협을 끌어온것이다. 박근혜는 집권 전기간 미국상선의 구린내나는 사탕수니에만 붙어다니면서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강그리 발악하였다.

박근혜가 민족앞에 저지른 또 하나의 죄악은 추악한 사대매국으로 민족의 자주권을 존엄을 해치고 외세와의 북침전쟁책동으로 핵전쟁위협을 끌어온것이다. 박근혜는 집권 전기간 미국상선의 구린내나는 사탕수니에만 붙어다니면서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강그리 발악하였다.

박근혜가 민족앞에 저지른 또 하나의 죄악은 추악한 사대매국으로 민족의 자주권을 존엄을 해치고 외세와의 북침전쟁책동으로 핵전쟁위협을 끌어온것이다. 박근혜는 집권 전기간 미국상선의 구린내나는 사탕수니에만 붙어다니면서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강그리 발악하였다.

박근혜가 민족앞에 저지른 또 하나의 죄악은 추악한 사대매국으로 민족의 자주권을 존엄을 해치고 외세와의 북침전쟁책동으로 핵전쟁위협을 끌어온것이다. 박근혜는 집권 전기간 미국상선의 구린내나는 사탕수니에만 붙어다니면서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강그리 발악하였다.